

금요기도회

- 쓴뿌리제거(15) -

**“탐욕 욕심의 영 쓴 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요한일서 2:15~17)

- 2023.03.10(금) 저녁8시30분 -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1) 이 세상에 속한 탐욕에 사로잡혀 미친 듯 살아온 죄

“하나님, 저는 이 세상에 속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죽을 때에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데도, 저는 더 가지려는 욕심과 더 높아지려는 욕심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리 물질적인 소유욕은 그렇게도 강한지, 그것을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를 갖고 싶은 욕심에 늘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그래서 저는 더 많이 가져보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으며, 때로는 주일도 빼먹고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늘 피곤했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니 피곤하여 예배시간과 기도시간에는 늘 졸았습니다. 영적인 일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새벽기도시간은 늘 나오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돈을 더 벌기 위해 십일조도 아까워 온전하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세상적인 욕망이 올라올 때면 그것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말씀하셨지만(딤후6:8)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나친 탐욕 때문에 제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고 하셨지만(딤후6:8), 저는 남이 가진 것에 대한 끊임없는 탐욕을 결코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어떤 것은 분수에 지나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욕과 권세욕에 빠져 살아온 탐욕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는 이 세상적인 것을 즐겨보려는 욕심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남들 해보는 것은 다 해 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먹을 것도 다 먹어봐야 했습니다. 남들이 입는 것이라면 나도 입어봐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남들이 놀러 다니는 곳에는 나도 놀러 가봐야 직성이 풀렸 습니다. 저는 이 세상의 쾌락에 사로잡혀 살았던 것입니다. 사 실 저는 취미생활이라고 말로 우겼지만, 실은 이 세상의 것들 을 보고 즐기는 욕망을 좋아했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 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흥도 즐겼고, 음란도 즐겼으 며, 해보고 싶은 것은 다 해보며 살았습니다. 끝없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욕망에 사로잡혀 산 죄 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것, 영원한 것, 영혼 을 위한 것에는 욕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땅에 속한 것에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거룩한 것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쾌락을 위해 네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며, 소유욕을 위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출20:17)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살아온 것입니다. 저의 이 부질없이 쾌락에 빠져 지내온 죄를 회개하오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 십자가 세우기 -

“이 세상의 탐욕에 사로잡혀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10회)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2) 무당 점쟁이의 죄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탐욕 욕심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욕심이 많은 사람은 무당인데, 무당을 찾아가 더러운 탐욕과 욕심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내 배꼽 주변에 자리잡고 그곳에 집을 짓게 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실 저는 쉽게 성공하고 싶어서 무당을 찾아갔으며 무당을 가까이 했습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무당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또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는지를 돈으로 물었습니다. 주님, 잘못된 욕심을 갖고 귀신들의 말을 듣고 무당이 시킨대로 행해온 지난 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부디 용서해 주시옵소서.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주님, 저는 갖고 싶고 이루고 싶은 욕망이 올라올 때에는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럴 때면 애를 태우며 전전긍긍하였습니다. 그럴 때에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응답받는 시간이 힘들고 귀찮아서 무당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욕심을 쉽게 이뤄줄 것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빌었습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무당을 찾아가서 속시원히 물어보고 무당의 힘을 빌려서 성공하고 복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악한 영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무당의 영은 귀신들의 영인데, 귀신들이 가르쳐주는 거짓 점괘에 미혹된 것입니다.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그렇게 믿겨지든지요, 주님, 거짓된 것을 믿고 따라서 그것으로 성공하려 한 죄를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탐심은 다 우상숭배라고 하셨는데(골3:5), 탐심이 가득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무당을 섬겨 우상숭배한 죄를 회개합니다. 저는 이 세상적인 욕심을 미끼로 무당의 영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나방이 불 속에 들어가듯 그만 무당에게로 발길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무당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무당이 섬기는 귀신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하나님, 이제는 더디 가고 혹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주님의 참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속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맘몬 신을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이 세상의 속한 탐욕보다는 성령의 열매로서 절제하는 마음을 제 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허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의 욕심이 변하여 오로지 기도욕심, 말씀욕심, 천국욕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늘의 욕심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쓴뿌리제거(15)- 탐욕 욕심의 영-

- 십자가 세우기 -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탐욕 욕심의 영과 십자가 세운
다”(10회)